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⑩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충분히 주의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랍니다.”

경비원의 전갈이었다. 염려 마시라고? 다분히 도전적인 저의가 느껴지는 전언이었다. 게다가 드르륵드르륵 소리는 여전하지 않은가? 이젠 한판 싸워 보자는 애긴가? 나는 인터폰을 들어 다짜고짜 909호를 바꿔 달라고 말했다. 신호음이 서너 차례 울린 후에야 신경질적인 젊은 여자의 응답이 들렸다.

“아래층인데요. 댁이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 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틀거리로 전화를 해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절더러 어찌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하시고 주의해 주세요.”

나는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뻘뻘스럽긴. 이젠 순 배짱이 짱아. 소리 내어 욕설을 퍼부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중략)

지난겨울 선물로 받은, 아직 쓰지 않은 실내용 슬리퍼에 생각이 미친 것은 스스로도 신통했다. 선물도 무기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 폭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로 인해 고통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사려 깊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 조곤조곤 타이르리라.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십 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웃사촌이라는 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좁은 현관을 딱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잖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 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부끄러움으로 얼굴만 붉히며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나) 옆어질 듯 앞마당에 뛰어들어 허겁지겁 샘물을 찾았지만 좀처럼 샘은 보이지 않았다. 친구가 허둥거리는 내 어깨를 건드리더니 손가락으로 마루를 가리켰다.

깨끗한 마루 위, ㉢ 주전자와 스테인리스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흰 수건이 접혀 있었다. 마루 끝에 걸터앉기도 전에 주전자에 손이 갔다. 주전자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 차가운 감촉이 주전자 주둥이에 입을 대고 마시는 무례를 막아 주었다. 떠다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차갑고 신선한 물을 그릇에 따라 양껏 마셨다. 자연스럽게 집어 든 수건은 잘 말라서 뽕뽕뽕한 것이 물걸레처럼 젖어버린 내 손수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기갈을 채우고 땀을 닦은 뒤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오늘 우리가 보시를 받았구나. 무상(無償)의 무상(無上)한 선의를 마셨구나. 보시를 베푸는 당사자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아득히 내려다보이는 하계는 빛 속에 찬란했다.

그 뒤로 한밤중이 되면 궁중암이 있는 곳을 자주 바라보게 된다. 어느 때는 흰 수건 빛깔 같은 불빛이 비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우연히 내 곁을 지나가는 누구에겐가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어줬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좋은 방편은 모르고 있지만.

- * 기갈(飢渴):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무상(無償):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
- * 무상(無上): 그 위에 더할 수 없음.

(다) 박수근 회화의 예술적 관심사는 사물, 관념, 자연 형상 등 ‘다른 것’보다는 인간 존재 즉 ‘다른 이’들이었다. 현실 세계에서 그가 만난 타자들은 성별과 연령대가 다양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향유와 주거, 노동과 소유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었다.

그의 예술은 노점상, 아기 보는 소녀, 실직자 등 고통받는 타자들을 지속적으로 주목했다. 그의 회화는 전쟁 때문에 가족을 위해 거리로 나온 <시장의 여인들>을 비참함의 대상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그의 회화는 또한 <아기 보는 소녀>를 불쌍한 아이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회화는 <놀고 있는 아이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아기 보는 소녀>의 응시로 그들의 결핍을 드러낼 뿐이다.

박수근 회화가 주목한 타자는 ‘그 당시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존재들이었다. 그는 폐허의 도시, 상실의 거리에서 <할아버지와 손자>와 <아기 보는 소녀>를 마주했다. 이웃들과 마주하면서 그가 경험한 마음의 불편함은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연결을 기본으로 한다. 그가 타자들로부터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면 이런 불편함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회화는 굶주림과 불안함에 고통받는 타자를 충격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리지는 않았다. 타자를 회화적 주제 앞에 세워두고 재현할 수 있는 일방적인 시선의 객체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화적 주체가 타자를 재현을 통해 포획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나)의 화자가 ㉡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80자 이내) [30점]

1-2. ㉡의 ‘나’는 타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30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저임금제도는 19세기 말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제도의 정책 목적이 저소득층의 복지와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변화하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은 그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항상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힘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을 팔려는 사람(노동자)과 사려는 사람(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질 때 균형이 이루어진다. 최저임금제도는 시장에서 정해진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따라서 기업은 고용량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기업이 장애인,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생산성이 더 높은 사람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아서 고용될 수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이 더 이상 이들을 고용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의 임금은 증가하는 반면 비용 상승으로 인해 기업가의 이윤은 줄어들 것이다. 이때 대체로 노동자는 저소득층이고 기업가는 고소득층이므로 노동자 집단의 총소득이 증가하고 기업가 집단의 총소득이 감소하였다면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반드시 노동자 집단의 총소득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 .

(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은 주로 고용이 줄어든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한 연구자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의문을 품고 ○○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량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100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인 ○○국은 각 주가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8년 5월 1일 ○○국의 A주가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15% 인상하였다. 그런데 2018년 1월과 12월의 취업자 수를 조사해 보니 2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고용량을 증가시킨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고용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기업이 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생산 규모를 조정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의 목표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생산량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고용량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자 집단의 총소득은 증가하고, 기업가 집단의 총소득은 감소한다. 이와 같이 소득분배가 개선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경제 전체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

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의 변화량이 같다면 그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고소득층 소비 변화량보다 저소득층 소비 변화량이 (㉢).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업은 생산을 확대할 것이고, 따라서 고용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2-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1) ㉠에 들어갈 말을 (가)에 근거하여 쓰시오. (20자 이내)

(2)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0자 이내)

2-2. (가)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들 중 (나)에서 반박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50자 이내) [10점]

2-3. <보기>에서 밑줄 친 ‘다른 주’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쓰시오. (60자 이내) [20점]

<보기>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A주의 사례는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최저임금만 고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을 증가시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와 고용량 변화를 비교해야 한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전자 슈퍼마켓’을 만들어 부모들에게 자신들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것을 활용하면 국가와 같은 중앙 기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아이의 유전적 형질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나 사회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려는 ‘유전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적, 지적 능력을 더 우수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전학적 강화’도 허용되어야 한다. 유전자 조작을 ‘신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류는 자연이 부여한 능력을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그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의 활용과 같은 인간의 프로메테우스적 도전에 의해 변화한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삶을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적 능력만을 강화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적, 미술적 재능과 같은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체력, 기억력과 같은 일반적 능력만을 유전학적으로 강화시킨다면 그것이 아이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유전학적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이 장차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 자신의 존재가 유전학적 프로그램을 통해 조립 부품처럼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아마 그 사람은 자기의식이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낄 것이다. 유전학적 개입을 통해 제 3자의 의도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저자로서 온전한 자율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 유전자 조작은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새로 태어날 아이가 장차 성인이 되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은 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반면에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된다. 왜냐하면 치료를 위한 유전학적 개입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모두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사자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해 강화를 위한 유전학적 개입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을 통해 기억력과 같은 일반적 능력을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억력의 강화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은 일을 오래 기억하게 함으로써 선이 아니라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아이의 유전적 형질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주어진 것이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유전자 조작이 없다면 아이가 유전적 형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특별히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유전학적 강화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자율성의 침해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찾아야 한다. 인간에게는 우연적으로 주어진 자연적 본성이나 재능이 있다. 그런데 유전자 조작을 시도하는 부모는 자녀의 유전적 특성을

우연히 주어진 ‘선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렇게 주어진 자연적 본성이나 재능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통제하고 정복하려는 프로메테우스적 태도는 잘못이다. 유전학적 강화가 그릇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 대한 대안은 (㉡)가 아니라 (㉢)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생명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선물이기에 그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연적으로 주어진 선물, 즉 타고난 본성이나 자연적 재능을 경외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유전자 조작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전학적 개입은 인간의 자연적 재능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3-1. 유전학적 강화에 대한 (나), (다)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10자 이내) [20점]

3-2. ㉠,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선택하여 한 개씩 쓰시오. [20점]

<보기>

자율적 아이, 유전적 제비뽑기에 맡겨진 아이
유전 공학적 아이, 유전적 질병을 지닌 아이

㉠ _____ ㉡ _____ ㉢ _____

3-3. 아래의 사례들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20점]

- ㉠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 그 아이의 유전자를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유전자로 변형한 경우
- ㉡ 합리적 판단 능력을 지닌 성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유전자 조작을 요구한 경우
- ㉢ 부모가 혈우병을 지닌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아이의 유전자 조작을 시도한 경우

- ① (가) 입장에서는 ㉠이 부모의 자발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겠군.
- ② (나) 입장에서는 ㉡가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기 어렵겠군.
- ③ (나) 입장에서는 ㉢가 아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군.
- ④ (다) 입장에서는 ㉢가 자연에 도전하는 프로메테우스적 시도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겠군.
- ⑤ (다) 입장에서는 ㉢가 자연적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겠군.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대의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주권을 위임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대의 민주주의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의 약화라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적 이익과 당파적 이익에 치우침으로써 갈등 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아래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사례들이다.

(가) A국의 대학교 신입생 선발 방식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정시 전형으로 정원의 30%를 선발하고, 수시 전형으로 정원의 70%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A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대학입시 방식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지난 수 년 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현행 유지’가 40%였고 ‘정시 확대’가 4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A국 정부는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하고자 ‘대학입시제도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학입시제도 시민위원회’는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의사 결정을 위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501명의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공론조사를 진행하였다.

- 1단계(1차 설문조사): ‘대학입시제도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501명의 시민 위원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행 유지’와 ‘정시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각각 40%와 43%로 나타났다.
- 2단계(토론 진행): 시민 위원들에게 각 안의 입장을 설명하는 동영상과 자료집이 제공되었다. 각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시민 위원들을 10개 조로 나누어서 분임 토의를 진행하였다. 분임 토의에서 시민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쟁점들에 대해서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일주일 동안 시민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집중 토론을 실시하였다.
- 3단계(2차 설문조사): 시민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1차와 동일한 문항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조사와 비교해 볼 때 ‘현행 유지’ 안이 40%에서 35%로 감소하였고 ‘정시 확대’ 안이 43%에서 51%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대학입시제도 시민위원회’는 시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최종 토론을 통해서 ‘정시 확대’ 안을 권고안으로 결정하였다.

(나) B국은 화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의 60%를,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40%를 충당하고 있다. B국에서는 지난 십여 년 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서 공기 오염과 원전 안전성 문제의 정책적 해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을 포함한 환경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꾸기를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서 현행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자고 맞섰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최근 발전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전체 유권자의 65%가 참여한 국민투표 결과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을 지지한 시민은 총투표자의 40%로 나타났고 현행 유지를 선택한 시민은 5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현행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C국의 선거제도는 전체 300개의 선거구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 제도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다른 시민들은 소선거구제가 대표자들의 책임성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국은 선거제도 개혁에 착수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학계, 시민단체, 정당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제도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C국의 지난 선거의 경험,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 선거제도 개혁을 이룬 나라들의 경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선거제도개편 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형태를 고려할 때, 현행 선거제도가 C국의 정치 발전에 더 나은 제도라고 권고하였다.

4-1. (가), (나), (다)의 의사 결정 방식이 대의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각각 설명하시오. (170자 이내) [45점]

4-2. <보기>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60자 이내) [15점]

<보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칠판에 길이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선이 그려져 있다. 흰색 카드에는 칠판에 그려진 세 개의 선 중 하나와 길이가 같은 선이 그려져 있다. 실험에는 10명이 참여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칠판에 그려져 있는 세 가지 선 중에서 흰색 카드의 선과 길이가 같은 것을 골라야 한다. 참여자 중에서 한 사람은 피실험자이고 나머지 9명은 실험 조력자이다. 피실험자는 맨 끝에 앉는다. 실험 조력자 9명은 모두 동일한 틀린 답을 말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피실험자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실험이 진행되자 맨 앞에 앉은 실험 조력자부터 순서대로 약속된 오답을 크게 외쳤다. 맨 끝에 앉은 피실험자는 자신의 순서가 되자 선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고개를 돌리기도 했고 선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일어서기도 했다. 결국 피실험자는 실험 조력자들이 먼저 답한 오답을 외쳤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앓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뽀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걸 우리 집이다.” (중략)

내가 영희 옆으로 다가갔을 때 영희는 장독대 바닥을 가리켰다. 장독대 시멘트바닥에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한다’고 씌어져 있었다. 집을 지을 때 남긴 낙서였다. 영희가 웃었다. 우리에게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랑에서 돌을 쪼았다. 그것으로 계단을 만들고, 벽에는 시멘트를 쳤다. 우리는 아직 어려 힘든 일을 못했다. 그래도 할 일이 많았다. 우리는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중략)

아주머니네 집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동네를 보았다. 우리 집이, 이웃집들이, 온 동네의 집들이 보이지 않았다. 방죽도 없어지고, 벽돌공장의 굴뚝도 없어지고, 언덕길도 없어졌다. 난장이와 난장이의 부인, 난장이의 두 아들, 그리고 난장이의 딸이 살아간 흔적은 거기에 없었다. 넓은 공터만 있었다.

(나)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무대로 잘 알려진 ○○시 △△동 일대는 개항과 더불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가난한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지역이다. 이웃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다닥다닥 붙은 집들, 한 사람만 들어서도 꽉 차는 비좁은 골목길……. 어려웠던 시대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시는 이 일대를 개항 이후 서민들의 주거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시는 자연 지형과 골목길 등 정감 어린 마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낡은 집은 개량하는 동시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어 주민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지형과 주변 환경에 맞게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형태의 저층 주거 단지를 지어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설의 탄생 배경이 된 장소를 찾아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자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동 작업장을 만들고, 공동 빨래방, 공동 창

고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들 계획이다.

(다) 도시 재개발 논의는 장소가 지닌 의미의 중요성을 간과해왔다. 장소는 사전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의하여 점유된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장소는 그 구체성과 가시성 그리고 안정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곳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인간이 상징성을 부여하거나 애착을 갖는 대상이다. 즉 어떤 장소가 그 물리적 특성이나 상상력 혹은 실재적이든 신화적이든 의미 있는 사건이나 인물과 연결되면, 특징적이고 기억될 만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곳이 된다. 또한 장소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여 애착이 생길 수 있는 곳이다. 애착은 장소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장소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둘러싸여 있다.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는 표준화된 가치와 태도를 확산시킬 수 있고, 자본주의 정치권력과 상품화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경관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하거나 장소에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장소에 대한 추상적인 기하학적 견해를 갖게 하거나 장소로부터 인간적 의미를 박탈한다. 결국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5-1. (가)에서 진행된 도시 재개발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3가지를 (나)와 (다)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30점]

5-2. (나)에서 ○○시가 계획하는 도시 재개발 방식을 <보기>의 ㉠와 ㉡로 볼 수 있는 각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20점]

<보기>

도시 재개발은 추진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전면 재개발은 낡은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 수복 재개발은 기존의 도시 기능과 환경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 수리·정비하는 방식이다. ㉡ 보존 재개발은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이나 기념물이 많은 지역을 유지·관리하는 방식이다.

(1) ㉠로 볼 수 있는 근거 (70자 이내)

(2) ㉡로 볼 수 있는 근거 (70자 이내)

5-3. (다)의 관점에서 ㉠의 화자에게 ‘집’이 중요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30자 이내) [10점]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시인의 임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개연성에 따라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 시인과 역사가의 차이점은 운문을 쓰느냐 산문을 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헤로도토스의 작품도 운문으로 고쳐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역사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근본적인 차이는 역사가는 저절로 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반면, 시인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 역사는 특수한 것을 말하고,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따라서 역사보다 ㉡ 시는 더 학문적이다. 또한 시인이 비극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연속적인 결합, 즉 플롯이다. 플롯을 훌륭하게 구성하려면 아무데서나 시작하거나 끝내서는 안 된다. 작품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제재로 다룰 때에도 시인은 개연성과 가능성의 규칙에 합치하도록 그 사건을 기술해야 한다. 최악의 플롯은 사건들을 일화처럼 상호 간에 규칙성도 없이 산만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역사이다. 역사가는 특정한 시대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할 때조차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치 통일된 목표를 가진 것처럼 꾸민다. 살라미스 해전과 시칠리아의 카르타고 전쟁은 동일한 시기에 잇달아 일어난 것이지만 통일된 목표를 갖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나) 나는 웅변을 아주 존중했고, 시를 매우 사랑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학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정신적 재능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을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하는 사람은 수사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감미로운 착상을 우아하고 고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시학을 모르더라도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나는 고전어를 공부하고 옛 서적을 탐독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데 충분한 시간을 소비했다. 그러나 지난 시대의 일에만 너무 몰두하면 현재의 일에 대해서는 모르게 된다. 대체로 역사란 유명한 인물과 사건만을 그럴듯하게 꾸며 기술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모범으로 삼는 사람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학문들을 공부하면 할수록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과 오류에 빠져 곤혹스러웠다. 책 속에 있는 학문들은 증명할 수 없는 개연적인 근거에 따르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 조금씩 구성되고 불어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들보다 나는 수학에 마음이 끌렸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직접 증명이 가능한 확실성과 분명함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수학 중에서 기하학은 추리의 긴 연쇄를 통해 물리학의 진리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었다. ㉢ 모든 사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하학의 진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자연의 진리가 아무리 깊숙이 숨겨져 있다 해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학은 특수한 주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을 위한 원리가 된다.

(다)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빛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그 원리는 우리 인간 자신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원리를 깨우친 사람이라면 그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이 역사에 대한 학문

을 무시하고 자연에 대한 학문만을 중시했다는 것에 대해 경악할 것이다. 자연을 창조한 것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리를 아는 자는 신뿐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세계, 즉 문명사회를 만든 것은 인간이므로 그것에 대한 진리를 아는 자도 인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자신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민족들이 만든 세계 속에서 모든 인간이 어떠한 점에서 항상 일치해 왔으며 지금도 일치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일치하고 있는 것, 즉 공통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보편성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인식이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도 그것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하학자는 점, 선, 면, 입체와 같은 요소를 가진 크기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자연을 탐구한다. 그러나 자연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기하학의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도출된 인식은 기하학의 공리처럼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문들이 다루는 대상을 만든 자가 누구인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심지어 역사학은 기하학자가 만든 세계보다 더 많은 실재성을 가지는 인간의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학문에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

6-1. ㉠을 (다)의 관점에서 반박하시오. (65자 이내) [20점]

6-2. (나)의 관점에서 ㉡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의 근거가 되는 학문의 조건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90자 이내) [20점]

6-3. ㉢에 대해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80자 이내) [20점]